

# “한표라도 더” 막판까지 지지층 결집...세 확산 총력전

민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정치권·사회단체 민형배 지지 잇따라  
김용민·용혜인 의원 등도 지원 사격  
김영록·송영길·신정훈·강기정 ‘빅텐트’  
“준비된 통합시장 대세론” 지지 호소



민형배·김영록 완도 순직 소방관 애도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과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가 12일 일정을 취소한 뒤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완도군 군외면 수산물 가공업체 화재 현장을 찾아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대원들을 위로했다. > 관련기사 4·6면



(민형배 국회의원·김영록 예비후보 측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 후보인 기호 1번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과 기호 2번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 간 표심 쟁탈전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양 측 모두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세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형배 후보 측은 각계의 지지 선언을 잇따라 끌어내며 지지층 결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민 후보 측 민심캠프에 따르면 ‘화순행복포럼’ 회원 70여명은 전남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공설운동장에서 민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통합특별시의 성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민 후보가 가장 적합한 선택”이라며 “그동안 신정훈 후보를 지지해왔으나 많은 토론 끝에 민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금주 전 국회의원도 이날 “민 후보는 소신과 대의를 위해 자신을 던질 줄 아는 강단 있는 정치인”이라며 민 후보 지지를 공식화했다.

손 전 의원은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결단은 지금 정치권에 꼭 필요한 덕목”이라

며 “AI-에너지 산업 중심의 산업 대전환과 일자리 창출 구상은 광주·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의 지원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경기 남양주병)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서동용 전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민 후보 경선사무소를 방문해 “민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전남·광주의 비전을 실현할 후보”라고 지원 사격을 냈다.

특히 용 대표는 “민 후보는 기본소득·검찰개혁·정치개혁의 길에서 늘 함께한 동지”라며 민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고 민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신정훈 의원을 지지했던 조명재 전 조직특보단장과 전남지역 일부 시·군 특보 등도 지난 10일 민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에 맞서 김영록 예비후보는 신정훈 국회의원·강기정 광주시장과의 연대를 발판으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명예 후원회장으로 영입해 ‘빅텐트’를 완성한 데 이어, 광주 구청장들의 측면 지원까지 이끌어 내는 등 ‘김영록 대세론’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11일 광주 서구 관천동 선거사무소를 찾아 김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신정훈 의원과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임택 광주 동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함께 해 김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한 초대형 ‘빅텐트’가 구성됐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은 현직 신분이어서 선거법상 참석이 불가능하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아 지역 발전을 위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 성과로 입증된 추진력 등을 모두 갖춘 김영록 예비후보의 명예 후원회장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김 예비후보가 마지막 승리하는 순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는 등 이재명 정부 탄생에 혁혁한 공을 세운 송 전 대표는 특히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피 말리는 변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다시 한번 지지와 연대의 박수를 보내자”며 “우리 광주·전남 시·도민이 ‘준비된 통합시장’ 김 예비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송 전 대표의 합류로 전남·광

주가 더 크고 새롭게 하나 되는 출발점이 만들어졌다”며 “김영록 예비후보가 승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다해 함께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강기정 시장은 “우리 모두가 김영록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뭉친 상황에서 송 전 대표까지 합류함으로써 ‘김영록 대세론’이 형성됐다”며 “김영록 대세론이 확정되는 그 순간까지 한 분, 한 분이 손잡고 함께 나서자”고 역설했다.

김영록 예비후보는 “광주·전남 시·도민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 반드시 승리해 전남광주특별시의 성공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우리 모두 승리의 길을 함께 손잡고 가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0일엔 신정훈 의원, 강기정 시장과 함께 순천·여수 등지를 찾아 동부권 민심 행거기에 공을 들였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 김대중 道교육감, 통합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성과 토대로 미래·통합 교육 완성”

15일 광주·전남서 각각 출마 선언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사진>

12일 김대중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10일 광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했다. 후원회 사무소는 순천에 차렸다.

김대중 예비후보는 “전남학생교육수당과 2030미래교실 구축 등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착착 준비하고 전남광주통합교육을 완성하겠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



다. 김 예비후보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광주YMC A에서,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전남도교육청에서 각각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선욱 기자

곡성이 고향인 김 예비후보는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으로 목포시의원(3선)과 목포시의회 의장, 장만재 전 전남도교육감 당시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고 30여년 만에 교단에 복직했다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남교육감에 당선됐다.

이날 예비후보 등록으로 김 교육감의 직무는 정지되며 황성환 부교육감이 전남교육감 직무대행을 맡는다.

김 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으로 통합교육감 선거에 나선 8명의 전남·광주 지역 출마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 오는 14일 통합특별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이 마무리되면 통합교육감 선거운동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김영록 “긴급 민생안정지원금 3천억 지급”

취임 직후 재정인센티브 등 활용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는 12일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 시 7월1일 취임 직후 3천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중동발 위기로 전남광주 민생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인센티브 등을 활용,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 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영세음식점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납부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수산단 석유화학 관련 협력업체들의 경영 안정을 비롯해 노동자들의 생계구호와 직업훈

련,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지원금도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내 택시·버스·화물 운수 종사자, 농림축산인구와 수산업업인을 대상으로 긴급 민생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인에게는 작품활동비, 지역 경로당 등에 부식비를 각각 지원한다.

김영록 후보는 “여수산단 일부 공장은 가동이 중단됐고,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비닐대란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재기, 사료값 인상, 비료 폭가 등 이른바 ‘전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곧바로 현장에 투입돼 막힘없이 광역행정을 진두지휘하고 지역의 어려운 곳을 살펴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 저 김영록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

다. /양시원 기자

4월 1일 BEST OPEN

## 광주공항 맞은편에 '베스트장례문화원'이 첫 문을 엽니다.

슬픔을 넘어선 깊은 위로, 형식을 넘어선 새로운 장례 문화가 시작됩니다.

'베스트(BEST)'는 단순한 최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인이 걸어온 삶의 마지막 길을 가장 아름답게 배웅하는 '존중'이며, 남겨진 가족의 슬픔을 세심하게 보듬는 '정성'입니다. 고인의 삶을 기리고 추억하는 품격 있는 공간으로서, 가장 편안한 시설과 마음을 다하는 서비스로 광주의 새로운 장례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베스트장례문화원**  
BEST FUNERAL CULTURAL CENTER

'베스트로 모시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509 (우산동) 광주공항 맞은편  
대표전화: 062-454-1000

찾아오시는 길: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509 (우산동) 광주공항 맞은편